

# “국책은행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수은, 해외온렌딩 금융지원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 유성엽 “지역경제 위해 지방은행 우대정책 도입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대내외 경기 침체,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 조업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정책 금융 수혜가 절실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나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은은 현재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중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소기업(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해외온렌딩'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

엽(정읍·고창, 대안신당(가칭) 대표)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은은 해외온렌딩 지원규모를 2016년 1조원, 2017년 1.9조원, 2018년 2.4조원, 2019년 8월말 2조원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으나, 금융지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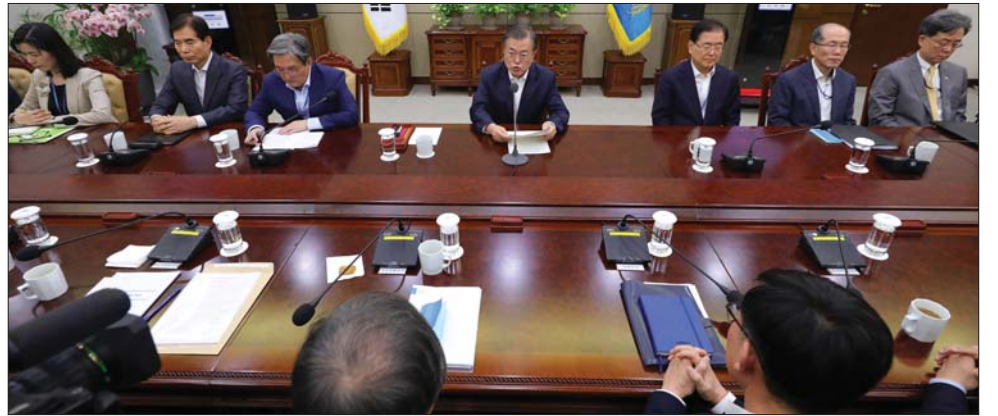
올해 8월말 기준 지역별 지원 비중은 경기 31.2%, 서울 20.4%, 경상도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도 6.4%, 대구 5.2% 순으로 전남북 지역의 경우는 지원금액 599억원으로 전체 2.9%에 불과했다.

또한, 수은의 해외온렌딩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총 14곳으로 이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단 2곳뿐, 이는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다수의 지방은행(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과 온렌딩 협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미미한 것

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수은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요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선제적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과 해외온렌딩 협약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금리인하, 지원대상 확대 등 지방은행 우대정책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2019년 상반기 기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2.7조원에서 제1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265억원 감소한 반면에 제2금융권 대출은 2018년 5797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1316억원으로 195.2%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왼쪽부터 김익숙 인사수석, 주영훈 경호처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규근 1차장, 김현중 2차장.

#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다시 한번 생각... 끝까지 매진”

###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끝없는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민생·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35일만에 사의를 표했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 개혁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때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권업무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

#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미래발전과 산업성장 위한 연구개발 역량 분석 실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경제강국 실현과 경제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세 번째 스터디 토론회를 실시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에 자체 스터디를 구성하고, 전북도 금융정책과 일본 한국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 대응, 국내·외 금리동향 등의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한 바 있으며, 자체 스터디 결성으로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번 스터디는 캠퍼스융합기술원 이회관 단장을 초청하여 전라북도 R&D 역량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기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소재부품 장

비 R&D 강화 등 기술자변 확대를 위한 R&D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분야의 R&D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장형 기업과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스터디 결성을 시작으로 경제·산업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등의 스터디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강용구 위원장은 “최근 2019년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었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향후 R&D 투자는 확대 될 전망으로, 도 단위 최후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도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분원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R&D 예산 확보와 내실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전북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인형기자

또한 김철수 부위원장은 “전라북도의 경제·산업 체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향후 전라북도가 의미있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로 지역경제를 선도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캠퍼스융합기술원 관계자는 “연구개발(R&D)은 성장잠재력의 원천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전북경제에 든든한 지원군이 만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진행 일정에 맞춰 자동차 산업, 상생형 일자리, 세계 공정무역, 전라북도 제조산업, 홀로그램, 농식품 기술생태계 조성 등 도정 현안 및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주영은 위원장, 전북도 자원순환기초 조례안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전주 제9)이 14일 전라북도 자원순환기초 조례안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교육부장은 자원순환 사회는 전라북도가 당연한 과제이며 1회

용품 안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주영은 위원장은 전라북도 자원순환기초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이명연 도의원, 김호주 환

경보건과장, 이정하 현대대점식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국주영은 의원은 “1회용 안 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인형 기자

# 10년來 사회재난 피해액 2.8조... 79%가 가축질병

### 소병훈 의원, 행안위 국감자료 지적... 돼지열병 철저한 대응 주문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94건에 달하며, 가축 전염병에 의한 재산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2018년 10년 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94건이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

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 전염병, 미세먼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말하며, 자연재난과 달리 예측이 어렵다.

94건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917명, 부상자 1524명, 실종자 67명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총 2조8077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난 유형별로는 다중이용시설 대형 화재가 25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해양선박사고 13건(13.8%), 산불 및 가축질병 3건(3.2%) 등의 순이다. 재산 피해액은 가축 전염병이 2조2026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회재난 재산 피해액의 78.5%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복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2010년의 구제역 사태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 제5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 그림그리기대회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4시 30분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

행사 개요	대회 운영
<b>행사명</b> 제5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b>일시</b> 2019년 10월 19일(토), 오후 1시~4시 30분 <b>장소</b>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 (전북 군산시 은파순환길 9) <b>대상</b> 유아·초·중·고교 재학생 <b>주최</b> 가천재단 <b>주관</b> 가천문화재단, 군산대초등학교 총동문회 <b>후원</b>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의회, 전주방송,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가천대길병원, 가천대학교 등 <b>행사구성</b> 그리기대회, 축하공연,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 등	<b>운영</b>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 <b>종류</b> 수채화, 크레파스화 <b>도화지</b> 심사용 도화지 각 2장 제공(대회 운영위원회 제작/준비) <small>※ 지학년(유아, 초1~초3)용, 고학년(초4이상)용 구분지급</small> <b>개별준비</b> 도화지외에 물감, 붓, 도자리, 간식 등 개인필요 물품 <b>주제</b>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선정하여, 현장 발표 <small>※ 우천시 1주일 연기(또는 취소)</small>
접수	시상내역
<b>접수기간</b> 2019년 9월 18일(수) ~ 10월 16일(수) <small>※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대회당일 현장접수 진행</small> <b>접수방법</b>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로 발송 (신청서: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b>접수처</b> 가천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 <small>※ 문의: (063) 731-2186</small> 우편접수: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관동로 141-13 / 54060 팩스접수: (063) 731-2588 인터넷접수: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가천 그림그리기' 접수페이지 이용 <small>※ http://www.gachon.or.kr/</small>	<b>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생 - 100만원</li> <li>• 중학생 - 50만원</li> <li>• 초등학생 - 30만원</li> <li>• 유아부 - 10만원</li> </ul> <b>금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고 - 각 10만원</li> </ul> <b>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고 - 각 8만원</li> </ul> <b>동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고 - 각 5만원</li> </ul> <b>입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고 - 각 1만원</li> </ul> <small>※ 약 430여명 시상예정(유·초·중·고교 구분) / 총 3천여만원 상당의 부상 제공</small> <b>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b>